

김 향 희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by Kim Hyan-hee, KIRA

# 변화의 중심에 서다

- 제1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Standing in the Center of Change

feature

오늘은 전년도 대회에서 차기 대회지로 선정된 고도, 현재가 공존하는 미래의 도시 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여성건축사회(회장 오경은)가 주최하는 '제11차 전국여성 건축사대회'가 개최되는 날(2005. 5. 27)이다.

분주하게 오전 일과를 마치고 유난히도 맑은 날씨와 함께 대회지로 출발하려는 순간 현장에서 다급함을 알리는 연락이 필자의 발목을 잡는다. 잠시 지연되는 대회 일정이 걱정됐지만 해결하지 않고 출발한다면 일정 내내 불편함은 불 보듯 뻔한 터라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원만한 해결을 본 뒤 가벼운 마음으로 개최지인 수원으로 향했다.

늦어진 출발로 인해 서울에서 출발한 팀과 만난 장소는 점심식사가 마련된 곳이었다. 이미 시작된 식사시간인지라 가벼운 눈인사만을 건네건만 서로들 환한 미소와 함께 반가움을 전한다. 마치 어제만난 친구처럼...

간단한 일정소개와 함께 찾아간 첫 행선지는 우리의 전통정원 '희원'이다.

이곳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전통정원의 멋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으로서 호암미술관이 정성을 기울여 가꾼 곳이다. 정원과 건물이 숨겨지고 드러나는 유연한 멋을 통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한국정원 본연의 미의식에 천착하여 이를 고스란히 되살려내려는 의지가 곳곳에 숨어 있었다.

전통정원 조형미의 근원인 '차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옛 지형을 복원하고 석단, 정자, 연못, 담장 등 건축적인 요소와 석탑, 불상, 벽수,

석등, 물확 등 석조물들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그 정서를 더해준다. 일정상 다음 행선지로 급히 가야하기에 서둘러 나와야함이 못내 아쉽지만 했다.

우리의 전통정원이 주는 단아함과 고요함을 만끽하기 위한 조용한 여행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본다.

바쁘게 찾은 다음 행선지는 연화장이다. 앞서 받아본 책자를 통해 장묘시설임을 알고 찾아가는 곳이라 경건함을 한껏 갖춰 설계자(건축가협회 경기지회장 김동훈)의 안내에 의해 처음 만난 것은 설계자가 “관계자의 배려로 화룡점정 할 수 있었다.”는 조형물이었다.

이승과 저승의 윤희 의미로 계속적인 원의 형성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조형물인 위령탑에서 시작된 축은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묘와 납골당으로 이어져 대지의 축에 순응하며 배치되었고, 이는 지, 수, 화, 풍의 배치논리로 형태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한다.

또한 전통풍수사상에 의하여 화장장은 남향에 배치하였고, 북향 재배에 따른 장례식장을 배치함은 물론,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존하는 수벽공간과 납골당의 원형평면은 설계자가 사후세계의 평등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라 한다.

더불어 장묘문화의 인식변화와 함께 종합장제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하 납골당과 함께 전시관 및 공연장이 어우러지는 공원화 형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도 잊지 않았으며,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협조해 준 관계자에 고마움을 전했다.

점점 더 수요의 필요성은 인지되나, 인식의 변화가 어려운 현실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일정이라 생각한다.

행사와 함께 1박을 위해 찾아간 숙소는 주변에 푸름이 가득한 한적한 곳이었다. 빠듯한 일정만 아니라면 한껏 느끼고픈 정취를

다 뒤로한 채 서둘러 실 배정이 이뤄지고, 곧바로 이어진 여성건축사회 오경은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의 축하를 위해 찾아주신 내빈 인사소개와 축사, 격려사, 환영사는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서 여성이 여성답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여성건축사로서, 그 시대 생활양식의 집합체인 건축물에 창조자의 역할을 맡껏 발휘하여 질 높은 건축사이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며, 이는 6월 24일에서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건축사대회에서도 그 위상을 높이자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이어 전년도 대회 때 토의 안건이었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건은 지역적 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바 수원 중앙교회 농아장애인 봉사센터에 후원금 전달로 그 뜻을 같이 하였다.

만찬과 함께한 개회식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언제나 든든한 우리의 버팀목이신 지 순선생님께서 격려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날까지 나와서 발전하는 여성건축사의 길을 지켜보겠노라”는 말씀으로 큰 용기와 힘을 주셨으며, 여성건축가협회 박연심 회장의 축사 또한 각 분야의 여성 건축가와 여성 건축사가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으로 그 힘과 용기는 배가 되었다.

전년도 경과보고에 이어 감사패를 김화순, 김화자 건축사에게, 기념패를 김화자, 문숙경 건축사에게 전달하며 작지만 고마움을 전달하였다. 이어 토의안건에서는 올해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개선안이 상정돼 전임 부회장이신 박영순 건축사가 신임회장으로 취임함과 함께 지역회원간의 활성화를 위해 충북지역 장마리아 건축사가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차기년도 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되 매년 행사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매년 5월 4째 주로 그 일정이 확정되었다.



제11차 정기총회 광경



전통정원 회원에서



연화장 위령탑



화성행궁 - 1



화성행궁 - 2



화성행궁 - 3

밤늦게 시작된 대회 1일째, 마지막 일정은 심리학 강의였다. 장소를 어렵게 찾아 도착하신 강사님의 열정은 지쳐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귀를 쫓긋 세우게 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강의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외부통제(자주)에 의한 바보가 되지 말고, 내 주변인들에게 좀 더 능동적으로 통제하여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가라는 이론의 집약을 9가지로 건강관리, 시간관리, 가족의 소중함, 자원과 재능, 재정, 인관관계, 환경, 가치추구, 믿음 등의 실천과제와 함께 정리하며 아쉬운 강의를 마쳤다.

너무 늦은 시간에 마쳐진 1일째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숙소 곳곳에서 두런두런 피어나는 이야기소리와 함께 서서히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산책을 위해 밖으로 나와 밤새 나누었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맴도는 듯한 건물을 바라보며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잠시의 여유를 즐겨본다.

이어 아침식사 장소로 이동, 풀맛 같은 열갈이 갈비탕으로 거뜬하게 아침을 해결하곤 화성행궁으로 이동하면서 대회 이틀째 일정이 시작되었다.

행궁 진입가로에 범상치 않게 철거되는 건축물을 보며,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착한 행궁 입구에서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도시계획에 의한 화성의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하나인 7,000평 규모의 공원조성을 위해 협의가 진행돼 이미 그 사업의 시작으로 철거작업이 이뤄지고 있노라는 화성사업소 도시과장인 이충영님의 안내로 한 곳 한 곳 발걸음을 옮겨본다.

화성행궁은 정조 13년 즉 1789년 수원 신읍치 건설 후 팔달산 기슭에 건립한 행궁으로 수원부 관아와 행궁으로 사용되다가 정조

18년(1794년)부터 정조20년(1796년)에 걸쳐 진행된 화성축성 기간에 화성행궁을 확대하여 최종 완성되었다.

우리나라 행궁 중 가장규모가 크고 아름다웠으며, 낙남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설물들은 일제의 민족문화와 역사 말살정책으로 인해 사라져 버렸지만, 1980년대 말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복원 운동에 의해 1996년 복원공사가 시작되어 1단계 복원이 완료되었으며, 계속적인 복원사업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세계문화 유산이다.

또한 화성은 동서양 군사시설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 현안, 치 등의 방어적 특성이 남아 있으며, 약 6Km에 달하는 성벽 안에 4개의 성문이 있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하나 느껴지는 조상의 숨결에 잠시나마 숙연해진다.

복원사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관계자들에게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며, 또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아낌없는 역량과 수고를 해주신 황정복 건축사님을 비롯한 수원지역 건축사 회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이제는 점점 막바지에 다다른 대회일정과 다르게 제법 익숙해진 회원간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간다.

해단식 장소에, 벽을 깨버린 여성이 힘이 느껴지는 조형물 앞에서 “우리가 진정 깨야하는 벽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제를 남겨보며 여전히 아쉬운 일정을 마쳐본다. ㄷ